

오레곤에 계신 서울대학 동문 여러분,

다 무고하시리라 믿습니다.

- **서울대 오레곤동문회 Forum 인 Zoom Table 세미나 시리즈 제 6 차 강연이 오늘 7 월 16 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PSU 이 정희교수님의 “한국/일본 그리고 중, 문화차이에 관하여” 강연이, 오레곤에서 오신 5 분, 타주에서 오신 동문 2 분등, 연사포함 모두 8 분의 참석자가 있던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강연을 해주신 이 정희 교수님, 그리고 참석하신 오레곤동문들, 타주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레곤 지역 참석자 (존칭생략):** 한국남(공대 57), 김기린 (사대 75), Dr. CR Kim (김기린 동문의 부군), 박희진(농대 78), 박혜선 (자연대 79)

**타주에서 오신 동문 (존칭생략):** 손명세 (샌디에고), 심동석동문(LA)\*

\*혹시 성함이 틀릴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강연 후기 (박 희진)**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문화비교를 한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닐것입니다. 이에 이 교수님은 인도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 시초가된 반가 사유상을 실사례로들어, 그것이 불교의 전래에 따라 중국 한국 일본등으로 전해지면서 각 나라에 나타난 차이점을 고찰하면서, 그 독특한 유니크한 특징으로 각국의 예술차이의 한 단면을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금동 반가사유상인 국보 78 호와 83 호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의 불상들을 side by side 로 보여주셔서, 그동안 유사하게만 보여왔던, 알지 못했던 차이를 보게끔 유도하셨습니다. 이 미묘하면서도 분명한 차이는 각자의 민족성및 그 나라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음을 또 보았습니다. 강연후의 자유대화시간엔, 강연만큼이나 진지한 토론이 오고갔는데, 이는 현 중국과 일본의 “역사외국” 과 “문화원조” 논란이 주제가 되어 각자 참석자가 그동안 느낀점을 여과없이 개진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 혈통을 가진 우리 하나 하나가 역사의식을 갖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임을 또 다시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 **오레곤 Zoom Table 제 7 차 강연이 8 월 20 일 토요일 11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 8 월 20 일 (토요일) 오전 11 시 (서부시간), 그 후 자유대화시간

**연사:** 김 왕도 박사 (공대 75), 교수, the professor of Ingeniería Mecánica, Universidad de Ingeniería y Tecnología – UTEC, Lima, Perú.

**제목:** 페루 이야기- 잉카 후에 페루의 역사, 도시, 풍속, 페루에서의 생활과 teaching

**(부제: Indigenous peoples and colonization of the Americas)**

지금은 페루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김 교수님은 과거 PSU 기계과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오레곤을 떠나신 후, 포르투갈의 대학과 서울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시다 몇 년전 페루의 한 대학으로 가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페루에서의 생활과 teaching,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대해 우리 오레곤 동문들에게 말해주십사하는 요청에 기꺼이 응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겐 생소한 페루, 그러나 과거엔 호령하던 찬란했던 문화의 잉카,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과연 그들의 현 위치는 어디쯤이며, 현 생활은 어떠한지에 대해, 페루에서 직접 살으시면서 경험하시고 있는 김교수님의 소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오랜 오레곤 동문들과의 re-union 의 의미도 있는 시간이므로, 김교수님의 강연 기대되는 바 큼니다.

## 김 왕도 교수



“...In 1532 at the [Battle of Cajamarca](#) a group of Spaniards under [Francisco Pizarro](#) and their [indigenous Andean Indian auxiliaries](#) native allies ambushed and captured the Emperor [Atahualpa](#) of the [Inca Empire](#). It was the first step in a long campaign that took decades of fighting to subdue the mightiest [empire](#) in the [Americas](#). In the following years, Spain extended its rule over the Empire of the [Inca civilization](#).

The protection of the indigenous populations from enslavement and exploitation by Spanish settlers were established in the [Laws of Burgos](#), 1512–1513. The laws were the first codified set of laws governing the behavior of Spanish [settlers](#) in the Americas,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treatment of native Indians in the institution of the [encomienda](#).

The conquest of the Aztec and Inca empires ended their sovereignty over their respective territorial expanses, replaced by the Spanish Empire. However, the Spanish Empire could not have ruled these vast territories and dense indigenous populations without utilizing the existing indigenou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at the local level. A key to this was the cooperation between most indigenous elites with the new ruling structure...”

### Join Zoom Meeting

<https://us02web.zoom.us/j/85953126163?pwd=amdpayt5cEw4TE1UTndXRjJkQndKUT09>

Meeting ID: 859 5312 6163

Passcode: 517005

- 한국 서울대학 “총동창회의 회보”가 오레곤지부로매월 10 부씩 배달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 미주 총동창회 Web Site 속 오레곤지부 web Page 가 개설되어, 지난달의 뉴스레터등을 볼수있고, Bulletin board 등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http://snuua.org/main/oregon-chapter/>
- 한국과학 기술 한림원 (회장 유 옥준 박사)의 세미나 시리즈  
한림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시리즈인 한림원탁토론회의는 모국인 한국의 과학 방향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

시리즈입니다. 세미나 일정에 관심이 있는 동문은, 한림원 정회원이신 오레곤의 한국남 교수님 (공대 57)에게 문의하시면(동문명부참조) 그 세미나 시리즈의 일정을 알수있습니다.

- 동문 소식란 입니다. 동문들과 공유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여기가 바로 알림의 장입니다. 소식뿐만이 아닌 여행시 사진이나 비디오, 글도 환영합니다. 연락을 주기바랍니다.

- **새 동문 권 정민 (kwon Jungmin)동문을 소개합니다.**

권동문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00 학번이며, 현재 포틀랜드 주립대 (PSU) 영화학과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and Film)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엔 2014 년부터 있었지만 동문회의 소식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되어읍니다. 권정민 동문 환영합니다!

이메일: [kwon3@pdx.edu](mailto:kwon3@pdx.edu) / 전화번호: 217.418.8284

- 포틀랜드 시내를 배경으로 한 드론 비디오를 공유합니다. (박희진)

<https://youtu.be/Q0byMVLpWnk>

- 다음은 다가 올, 올해 마지막 Zoom Table 대화 시리즈 일정입니다. Link 는 차후 광고시 보내드립니다.

- 9 월 24 일 (토요일) **오후 7 시\*** (미국 서부시간): 김 영호 박사 (정치외교 78), 교수, 성신여자대학  
“**현 한반도와 국제정세**” (\*연사가 한국에 있으므로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건승하기 바랍니다.

박희진

SNUAA-Oregon 지부회장

Jan 2022-Dec 2022